

‘태풍의 눈’ 천정배...신당 움직임 심상치 않다

■ 머뭇거리는 새정치, 야권 신당창당 빨라지나

염동연 “9월 창당 구체화”...정대철·박준영 등 공감대 확산

박지원·안철수 행보도 변수...10월 기초장 재보선 분수령

야권의 신당 창당 흐름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신당 창당의 동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강력한 비전인 담긴 새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신당 창당이 구체화될 시기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9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서 치러지는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결과는 신당 창당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신당 창당 흐름=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차기 총선 및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것이 신당 창당의 명분이다. 분열과 반목의 프레임에 발목이 잡힌 정당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계파 갈등이 진정되나 해도 그동안의 뿌리 깊은 친노-비노의 불신 구조를 감안하면 결국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창조적 파괴의 신당 창당을 해서 총선에서 경쟁하고 대선에서 단일 대오를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신당 창당을 선전할 정도로 정치적 명분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판단이다. 김상곤 혁신위가 출범한 만큼 일단 기다리면서 신당 창당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신당론자들은 김상곤 혁신위가 통합과 혁신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공천 혁신안을 놓고 당내의 내분이 오히려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신당 추진 세력=우선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태풍의 눈’이다. 천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 직후 밝힌 것처럼 정치세력화에 나서고 있지만 신당 창당을 결심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치세력화를 하다가 보면 신당 창당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여지를 남겼다. 특히 천 의원은 지난 19일 신당론자인 정대철 고문과 문학진 전 의원 등과 만나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염동연 전 의원은 “9월 중순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천 의원과 소통하고 있으며 신당 창당을 위해 당 내외 인사들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왼쪽 두번째) 혁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당 개혁과 지역 민심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구 민주계 진영 등으로부터 신당 창당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사는 2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신당 창당을 통해 정권 창출의 비전과 희망을 키우라는 것이 민심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대철 고문과 동료동계 일부 인사들이 신당 창당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창조적 파괴를 언급한 김한길 의원에 신당 창당과 관련 당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 신당 창당 변수=당내 최대 주주인 친노 진영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사무총장 인선 등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비노 진영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신당 창당의 흐름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의준과 사측생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 내외의 공감

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의 과제도 엄중하다. 친노와 비노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설익은 혁신안을 내놓았다는 오히려 비판만 가중시킬 수 있다.

호남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행보도 주요 변수다. 박 의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신당 창당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등 당 내외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신당 창당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다.

광주와 전남의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결과는 신당 창당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신당 창당의 ‘도화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새정치 시당, 지역 현안 공조 다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U대회 협력 등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광주 U대회, 메르스 대응, 아시아문화전당 인력 확보 등에 적극적인 공조를 다짐했다.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요 안건으로 제시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 ▲첨단실감 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무등산정상 방송·통신시설 통합 ▲경전선 전철화사업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 U대회 입장권 구매 확대를 비롯한 범정부차원 U대회 메르스 관리대책 및 예산지원, 호남고속철도 증편, U대회 대비 인천공항-송정역 KTX 왕복 3회 증편, 문화전당 조직 구성 확대 등 지역현안 4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밖에도 아시아문화개발원 현황

과 자치구별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광주 U대회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양측은 결의문에서 광주U대회 성공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자부심 확산과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 등을 결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윤장현 시장 등 광주시 간부들, 박해자 광주시당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시의원,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5개 자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에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며 “U대회와 국비확보, 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해자 시당위원장은 “U대회 성공에 최와 지역발전, 시민을 위해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정책현안에 유기적인 당정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의당, 노회찬·심상정 당권경쟁 시작

어제 광주·전주 첫 선거 유세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심상정 전 원내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가 21일부터 전국 순회유세를 하며 본격적인 당권경쟁에 나섰다.

정의당과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등 진보진영의 4개 세력이 올해 안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임기 2년의 이번 새 대표를 내진보 진영의 새판짜기를 주도하면서 내

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이번 대표 경선에는 정의당의 간판격인 심 전 원내대표와 노 전 대표 외에 노회찬 전 정책위의장,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도 참여했다.

이들 당 대표 후보자 4명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와 광주에서 첫 선거유세를 했다. 최종결과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과 현장, ARS 투표 등을 거쳐 12일(결선투표시 19일) 나온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무총장에 막힌 새정치 당직 인선 ‘진퇴양난’

문, ‘최재성 카드’ 고수 비주류 진영 적극 반대로 결론 못내

‘총선 불출마 전제’ 김동철·강기정·우윤근 의원 “안맡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표는 현재 ‘최재성 카드’를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 이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론나지 않는 탓이다.

문 대표는 애초 혁신위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당직 인선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혁신위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계속 고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이어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 등 비노(비노무한) 진영에서 이번 인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면서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어 문 대표는 점차 구석으로 물리는 모습이다. 이윤득 최고위원은 “최 의원이 나쁘다

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반발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다른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직인선은) 기다려 달라”면서 “다 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문 대표 입장에서 도마탄 대안이 없어 보인다. 애초 문 대표 측은 광주 3선인 김동철·강기정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사무총장을 맡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은 또 최근 전남 3선인 우윤근 의원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최 의원의 카드를 접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표결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대립이 깊어질수록 문 대표의 리더십도 더 흔들릴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하든, 봉합책을 찾든 서둘러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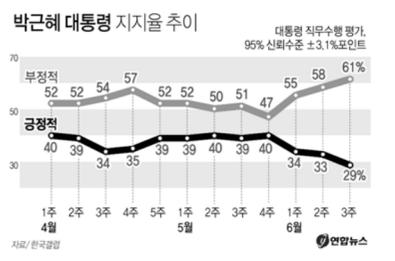
그러나 비노계의 한 인사는 “표결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을 문 대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로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비노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지지도 29%로 하락...취임후 최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9%로 급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29%로 집계됐다

는 전체의 29%로 집계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부정 평가 비율은 61%였다. 전주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해 긍정-부정을 격차가 32%포인트로 벌어졌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8%(총 통화 5585명 중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박지경기자 jkpark@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273 호

2015년도 하반기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공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2015년도 하반기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목적

○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채용하여 기업의 기술역량확충 및 연구활성화 계기 마련

2. 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주요내용

- 지원기간 : 최대 2년 10개월 (매년 실적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인원 : 기업당 퇴직과학기술자 1명
- 지원내역 : 총 6,120만원 (3차년까지 계속지원 받을 경우)
 -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기업부담금 (월 70만원 이상) 과 합산하여 매칭펀드로 활용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기간	2015. 9. 1 ~ 2016. 6. 30 (10개월)	2016. 7. 1 ~ 2017. 6. 30 (12개월)	2017. 7. 1 ~ 2018. 6. 30 (12개월)
기준연봉	10개월 기준 2,5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연 3,000만원 이상 (월 25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	연 1,800만원 (월 180만원)	연 2,160만원 (월 180만원)	연 2,160만원 (월 180만원)
기업부담금	70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연 840만원 이상 (월 70만원 이상)

○ 신청자격

- 인력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기술원)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 대기업 연구소 책임급 (차장) 이상 퇴직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기술·연구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기준)
- ② 사업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인 퇴직과학기술자
- ③ 주별 3일 (1일 8시간) 이상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무 가능한 자
- ④ 사업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접수마감일 사이 ('15. 3. 22 ~ '15. 8. 5) 에 채용된 자
-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연구행정직 제외 (이공계인력에 한함)
-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고용보험가입 기준)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인력이 사업공고일 현재 지원기업 이외의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력이 한국인 (한국국적) 이 아닌 경우
- 신청인력이 신청기업에서 테크노닥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신청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NTIS) 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400%이상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이 보충종업원이 불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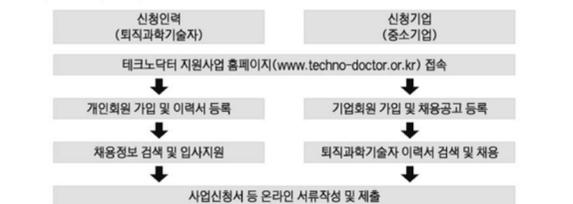
4. 평가방법

- 1차 : 신청기업 및 신청인력의 적격성 검토
- 2차 :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 기업부문 : R&D 투자율, 기업안정성, 기업부담금 등
 - 인력부문 : 특허, 학회지 게재 논문 등
- 우대사항
 - 지방소재 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기업
 - 여성 신청인력 채용 기업
 - 이노비즈 인증 기업
 - 퇴직 후 5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과학기술자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신청방법

-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 및 제반서류 작성 후 출력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 '15. 7. 20 (월) ~ '15. 8. 5 (수)

※ 접수기간 외에는 온라인 서류작성이 불가하며,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신기협회관 10층 이공계인력증개센터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담당자 양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증개센터 박상원 주임 (02-3460-9167, garden@koita.or.kr)

7. 기 타

- 선정결과는 개별정보 예정
- 공고 인터넷 확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뉴스·알림 → 사업공고
 -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종합정보시스템 (stfund.nrf.re.kr) 사업공고 → 사업공고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oita.or.kr) 공지사항
 - 테크노닥터 홈페이지 (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 고령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www.rsec.or.kr) 공지사항
 - 이공계인력증개센터 홈페이지 (www.rndjob.or.kr) 공지사항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은 “작은 희망을 모아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